



보도시점 2024. 12. 31.(화) 조간 누리망 · 방송 2024. 12. 30.(월) 12:00

경찰청-신한금융그룹 협업, 제4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 민생금융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도운 경찰관과 시민 등 10명의 영웅 선정
- 수상자를 직접 찾아가 시상식 진행, 개인당 300만 원 상금 수여

경찰청은 신한금융그룹 및 굿네이버스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제4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은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유공자를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4회 시상식에서는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 검거를 도운 공공근로자, 택시 기사 등 시민 5명과 자금세탁 조직원, 현금 수거책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까지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하였다. (붙임 참조)

특히 올해 시상식은 경찰청과 신한금융이 수상자를 직접 찾아가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은 적극적인 신고와 범인 검거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 사례를 널리 알려 본보기로 삼는 뜻깊은 행사이다.”라며,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은 물론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두고 용감한 행동을 실천한 영웅들을 포상함으로써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찰청과 함께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2021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신한금융의 고객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교육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예방 콘텐츠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2022년부터 가족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우리 가족 암호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도 공동 진행 중이며, 신한금융은 지난 6월부터 ‘신한 슈퍼SOL’ 앱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시상식 사진 및 영상자료 별도 제공

담당 부서 <총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책임자	총경	안찬수	(02-3150-0141)
		담당자	경정	백의형	(02-3150-2782)
	신한금융지주회사 홍보팀	책임자	부장	이승연	(02-6360-3173)
		담당자	차장	이규호	(02-6360-3177)



붙임

제4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공적

구분	직업/소속	공적요지
시민	공공근로자	▶ 공공근로 중 화장실 옆 칸에서 '아들을 납치했으니 합의금을 보내라'는 통화를 듣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손으로 X자를 그려 전화를 끊도록 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
	퀵서비스기사	▶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비대면으로 수령해서 목적지로 전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범죄를 의심, 112에 신고하여 대포 유심 200개를 판매한 범인 검거에 결정적 기여
	택시기사	▶ 승객이 계속 목적지를 바꾸자 범죄를 의심, 화장실을 핑계로 휴게소에 간 다음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후 매점에서 전화를 빌려 112에 신고, 형사가 전화하자 친한 후배인 것처럼 대하며 자연스럽고 위치를 알려주는 기지를 발휘해 총 2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 기여
	택시기사	▶ 대구에서 탑승한 손님이 경북 예천·안동 등으로 목적지를 바꾸고 연신 휴대전화를 보며 안절부절못하자 범죄를 의심, 112에 신고하여 검거는 물론 직접 주변을 수소문해 5천만 원을 건넨 피해자까지 찾아내 피해회복에 기여
	은행원	▶ 노인 고객이 예·적금을 해지하고 수표발행을 요청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해지사유를 묻자 "집을 옮긴다."라며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옆 직원에게 112신고 요청하고, 고객과 계속 대화하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며 6,800만 원 피해 예방
경찰관	서울청강서서	▶ 현장 추적수사를 통해 수거책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 총 159명을 검거(구속 7)하고, 피해금 총 3억 6천만 원을 압수하여 16명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피해회복에 기여
	인천청중부서	▶ 조폭과 결탁하여 투자리딩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으로 14억 원을 편취한 범죄단체 및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로 1,295억 원을 세탁한 일당 등 민생 금융사기범 40명 검거(구속 17) ▶ 범죄수익 30억 원 압수 및 6억 원가량 추정보전
	대전청유성서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악성 앱을 설치한 피해자가 범인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수거책 34명 검거(구속 3)
	경기남부청형사기동대	▶ 피해자 115명으로부터 총 4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중국 거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총책 등 17명 검거(구속 4) ▶ 1조 2천억 원 상당의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환전소 6곳을 단속하여 무등록 환전상 등 총 186명 검거(구속 20), 6억 원 추정보전
	경기북부청의정부서	▶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한 중국 및 베트남 거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33명 검거(구속 26) ▶ 대포 계정 7천 개를 유통한 피의자 및 중계기 관리책 등 14명 검거(구속 6), 범죄수익 6억 5,700만 원 추정보전